

# 손흥민, 맨유전 첫 골 사냥... 이강인, 음바페와 호흡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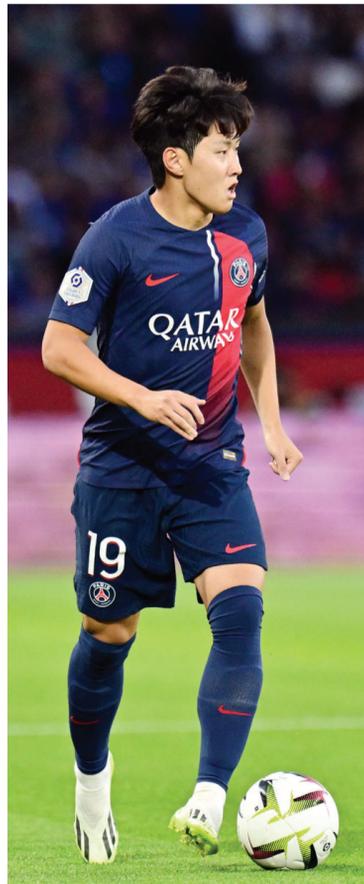
유럽축구로 잠 못드는 주말 밤  
손, 주장 완장 차고 출전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민헨 김민재, 분데스리가 데뷔전

한국 축구대표팀과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새 시즌 마수결이 득점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1시 30분 맨유와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1라운드 브렌트퍼드와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긴 토트넘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브렌트퍼드전에서 공 점유율 70%, 슈팅 18개를 기록하며 공세를 퍼부은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지난 시즌 3위 맨유에도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팬들은 손흥민의 골 소식을 기다린다.  
간판이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뉘른)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이 메우게 된 게 '리더십 공백' 뿐만이 아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케인이 떠난 최전방에 배치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에게 '득점력'을 기대한다.  
브렌트퍼드전에서 왼 측면 공격수로 출전, 슈팅 2개에 그친 손흥민은 '부활'을 호언장담했던 만큼 시즌 초반부터 그라운드에서 특유의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손흥민이 한 골을 더 추가하면 EPL 통산 104호 골을 기록,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103골)를 제치고 디디에 드로그바(은파·104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도 이날 오전 4시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고 툴루즈FC와 2023-2024시즌 프랑스 리그1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은 로리앙과 리그 개막전(0-0)부터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82분을 소화하며 명문 PSG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입증했다.  
극단적으로 수비에 치중한 로리앙을 상대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물줄기를 트면서 사무국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선수 자리도 따냈다.  
다만 팀 공격진 변화로 툴루즈전에서는 뛰는 위치가 변할 수 있다.  
2선의 '타춧대감' 네이마르가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고, 팀과 갈등을 겪던 간판 스트라이커 킬리안 음바페가 선수단에 복귀했다. 프랑스 국가대표 원어 우스만 뎀벨레까지 막 합류한 터라 공격진 경쟁이 치열해졌다.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이 돋보이는 이강인인 만큼,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호화 공격진을 지원할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바이에른 뉘른)도 주말 출격한다.  
뉘른은 19일 오전 3시30분 베르더 브레멘과 2023-20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홈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는 이 경기를 통해 분데스리기에 데뷔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케인의 분데스리가 데뷔 경기가 될 공산도 크다.  
지난 13일 RB 라이프치히와 2023 독일축구리그(DFL) 슈퍼컵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토트넘 손흥민



PSG 이강인



뉘른 김민재



산체스



김선빈

## KIA 산체스·김선빈에 쏠린 시선

‘호랑이 군단’의 주말 3연전, 산체스와 김선빈에게 시선이 쏠린다.  
KIA 타이거즈는 18일 대구가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3연전에 나선다. 박병의 순위 싸움 속 이제 48경기 밖에 남지 않은 만큼 1승의 가치는 더 중요해졌다.  
하위권에 있는 삼성과의 승부이자 올 시즌 8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대와의 만남인 만큼 KIA는 이번 원정에서 승률 높이기에 나선다.  
마운드에서는 산체스에 눈길이 간다.  
KIA는 ‘베테랑’ 양현종이 연달아 대량 실점을 하는 등 후반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엔트리 말소를 단행했다. 한 팀 쉬어가면서 심신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양현종이 빠지면서 KIA는 20일 대체 선발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  
주말 삼성전에 나서는 산체스의 이닝과 결과에 따라 팀의 주말 3연전 성적과 마운드 기용도 달라질 전망이다.  
KIA는 순위 싸움을 위해 시즌 중반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했다. 메디나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한 산체스는 첫 경기에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다.  
산체스는 변화 무쌍한 변화구 실력으로 기대감

삼성과 대구 원정 3연전  
산체스, 긴 이닝 소화에 중점  
김선빈, 라인업 극대화 ‘키맨’  
을 키워지만 후반기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산체스는 후반기 5경기에서 6.8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1승 2패에 그쳤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이닝이 아쉽다. 5경기에서 산체스가 책임진 이닝은 25이닝.  
앞선 롯데전에서는 5이닝을 던졌고 앞선 한화, 삼성전에서는 각각 4.1이닝과 4이닝을 채우는데 그쳤다.  
대체선발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산체스가 확실하게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의 부담을 줄여주고 승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산체스 입장에서는 설욕 무대이기도 하다.  
산체스는 지난 1일 포항야구장에서 진행했던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4이닝 10피안타(1피홈런) 7실점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남겼다. 이번에는 대구로 무대를 바꿔 설욕전에 나선다.  
KBO리그 첫 경기부터 투구폼 논란으로 고전했던 산체스지만 이 부분에서는 답을 찾은 모습이다.  
김중국 감독은 “이제는 정확하게 정립이 된 것

같다. 앞선 경기에서도 불필요한 견제 동작 안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 긴 이닝 던져줄 일만 남았다”며 산체스의 등판에 기대감을 보였다.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김선빈에 시선이 쏠린다.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8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선빈이 이번 대구 원정 선수단에 합류한다.  
김선빈이 돌아오면서 KIA는 폭넓게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화력 극대화를 할 수 있다. 특히 박찬호를 필두로 최원준-김도영 등 ‘KIA 육상부’를 넓게 배치해 이종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전망이다.  
KIA는 최근 최원준과 박찬호로 테이블 세터를 구성하고 김도영을 3번에 배치했다. 17일 키움전에서는 최근 페이스가 가장 좋은 박찬호가 톱타자로 배치됐고, 최원준과 김도영이 그 뒤를 이었다.  
17일 키움전에 앞서 김선빈의 복귀 소식을 전한 김중국 감독은 “김선빈이 합류하면서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을 9번, 1번, 2번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가장 좋은 게 나성범과 중심 타선이 1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며 “김선빈은 테이블 세터도 되고, 컨택트 능력이 좋아서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오니까 중심 타선도 된다”고 김선빈의 활용도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7경기 연속 무패 도전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광주FC가 승리로 7경기 연속 무패를 잇는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7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하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포항스틸러스에서 전개된 원정경기에서 상대의 끈끈한 조직력과 강한 전력에도 '2위'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20분 고영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나온 티모의 동점골로 만든 귀중한 승점이 다.  
포항을 상대로 지지 않는 싸움을 한 광주는 최근 6경기 무패(2승 4무)를 기록하면서 순위 싸움의 중심에 섰다.  
4위 FC서울이 대전전 패배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광주는 승점 차 없는 5위로 서울을 쫓고 있다.  
3위 전북현대와는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로 승점 2점 차 7위 인천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앞선 포항원정에서 0-1로 뒤진 후반 센터백 티모를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티모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양 측면에서는 엄지성과 아사시가 매서운 크로스와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교체 투입된 김한길이가 과감한 드리블로 흐름을 바꿨다. 중원에서도 정호연과 이순민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누적으로 쉬어갔던 '인천 킬러' 이희군도 이번 인천 원정에 가세하면서 광주는 다양한 전술로 상대 골문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는 10승 8무 8패(승점 38)로 5위, 인

천은 9승 9무 8패(승점 36)로 리그 7위에 올라있다.  
오만석과 멜브리지, 문지환, 이명주, 김도혁, 제르소 등 공수 전반에 걸쳐 탄탄한 스쿼드를 보유한 인천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공격수 무고사를 재영입하면서 화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대승의 기억을 살려 인천 안방에서 승리를 챙기겠다는 각오다.  
역대 전적에서 7승 13무 6패로 팽팽하게 맞서 있지만 지난 시즌 F.A컵 원정에서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6-1 대승을 거뒀다. 또 지난 3월 홈에서 진행한 리그 맞대결에서도 5-0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탄탄한 조직력과 뜨거운 공격력을 앞세운 광주가 인천을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김천상무를 상대로 새 출발선에 섰다.  
전남은 2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김천상무와 K리그2 2023 2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26라운드 부산 원정경기에서 0-1,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후반 38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라마스에게 골을 내준 전남은 수비수 고태원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만회골을 노렸지만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안방에서 만나는 김천상무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대다. 난적을 만났지만 발디비아, 플라나, 하남을 앞세워 골문을 노린다. 또 베테랑 이주권, 이석현, 김수범과 신인 유지하, 노건우 등 신구의 조화를 바탕으로 김천상무를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앞서 16라운드 김천상무와의 맞대결에서 발디비아의 골로 1-0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발디비아가 다시 한번 해결사로 활약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맨시티, UEFA 슈퍼컵 우승... 승부차기서 세비야 제압

지난 시즌 3관왕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이하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까지 품에 안았다.  
맨시티는 17일 그리스 피레아스의 카라이스카 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비야(스페인)와의 2023 UEFA 슈퍼컵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1-1로 비겨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UEFA 슈퍼컵은 그해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단

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올해 6월까지 열린 2022-2023시즌 UCL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는 슈퍼컵에서도 첫 우승을 달성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과 UCL을 제패해 트레블을 일궈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자마자 슈퍼컵까지 거머쥐며 유럽 최강팀임을 재차 입증했다.  
/연합뉴스